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 5:14)

금주 금요일집회 강사

일시: 1월 20일 금요일집회시

강사: 패트릭 펄 선교사(국제 OMF 총재)



외선부 겨울수련회

일시: 1월 22일(주일)~23일(월) 장소: 충현 기도원

주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시 67:2)

새가족 환영회

일시: 2023년 1월 15일(오늘) 오후 2시

대상: 2022년 9~11월 새가족 기본과정 수료자

장소: 베다니홀

벤엘 찬양대원 모집

기간: 2023년 1월 8일(주일)~2월 5일(주일)

모집인원: 각 파트별 3명

*자세한 내용은 8면 및 홈페이지 참조

월요 중직자 새벽기도회 화요일로 변경

일시: 1월 31일(화)부터 설교: 한규삼 담임목사

지난 한주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말씀에 은혜 받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은 세상 속으로 보냄 받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언약백성으로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설립 '70주년 전교인 성경통독' 신청자 모집

2023년에는 '70주년' 전교인 그리스도 중심 성경통독을 실시합니다.

성경완독을 하실 경우 '해외 선교지에 성경 보내기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통독 기간: 2023년 1월 30일(월)~11월 18일(토), 42주간(기간 중 2주 방학)

성경통독 보조교재: 리딩 지저스(총 6권 90,000원)

*2022년 보조교재를 구입하신 분은 재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기간: 1월 15일(오늘)까지

신청방법: 충현교회 홈페이지/ 네이버 신청(교구 및 부서 단독 공지)/ 사무국 신청

문의: 최병일 안수집사(세움위원회 성경통독부 010-7534-2952)

* 설명절 가정예배 본지 7면에 게재

2023년
제10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 모집

현재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수료하고 작정한 190여명이 온라인과 현장기도로 계속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4(토)	10:00-10:50	기도와 중보기도
	11:00-11:50	충현교회의 기도운동과 사역의 실무
2/11(토) 현신자의날	10:00-10:40	중보기도자의 성경적 모델과 의무
	11:50-11:30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11:30-13:00	제5회 현신자의 날(예배, 간증, 식탁의 교제)

2/18(토)	11:30-13:00	신약의 기도
	11:30-13:00	영적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
2/25(토)	11:30-13:00	구약의 기도
	11:30-13:00	응답받는 기도
3/5(주)	오후 찬양예배시 / 수료 및 현신서약 예배	



대상: 충현교회 세례받은 성도 누구나

일시: 2월 4일, 11일, 18일, 25일 (토요일, 4주간)

장소: 1교육관 501호

신청방법: 사무국 또는 충현기도실 행정실, 중보기도훈련 QR 신청

신청마감: 1월 29일(주일)까지

교재비: 5,000원

문의: 홍명주 전도사 010-2772-4856, 황경분 차장 010-2013-5006

금요일집회 시리즈 설교 학점제 신청



주제: 로마서 강해(1-3장)

일시: 1월 27일~5월 12일(11주간, 3학점), 금요일집회시

설교자: 한규삼 담임목사

신청기간: 1월 26일(목)까지

신청방법: 충현교회 홈페이지/ 네이버 신청(교구단독공지)/ 교구모임시 신청서 작성/ QR 신청

1월 27일(금)	로마서 강해(1) / 롬 1:1-7	3월 24일(금)	로마서 강해(7) / 롬 2:1-11
2월 3일(금)	로마서 강해(2) / 롬 1:8-15	4월 21일(금)	로마서 강해(8) / 롬 2:17-29
2월 10일(금)	로마서 강해(3) / 롬 1:16	4월 28일(금)	로마서 강해(9) / 롬 3:9-20
2월 24일(금)	로마서 강해(4) / 롬 1:17	5월 5일(금)	로마서 강해(10) / 롬 3:21-26
3월 3일(금)	로마서 강해(5) / 롬 1:18-25	5월 12일(금)	로마서 강해(11) / 롬 3:27-31
3월 17일(금)	로마서 강해(6) / 롬 1:26-32		

지난 주일(1월 8일) 설교 되새기기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31:11-12)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선포하였습니다(렘29:11).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충청교회의 표어인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처럼, 언약을 더 단단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언약을 붙드는 방법’ 뿐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모습’에 대하여서도 선포했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렘29:10)의 말씀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더욱 잘 붙드는 삶의 중심에 ‘결국에는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더 깊이 마음속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와 ‘강한 손’

“보라 내가 그들을 복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8절)”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 출애굽 하였던 백성의 수와 비교하면 결코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큰 무리’라는 표현에는 영적인 상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땅 끝’인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를 살펴보면, ‘알을 보지 못하는 분’과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하여 ‘큰 무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영적인 불완전함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다는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그룹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머나먼 길을 걸어갈 행렬에, 산달이 입막한 여인들과 아이를 낳은 여성들이 합류해 있었습니 다. 이것은 영적인 도전입니다.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 못 보는 사람, 걷기 힘든 사람,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큰 무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이를 통하여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잘 돌아가는 성도가 언약을 붙드는 성도’라고 교훈합니다.

작년에 주님 품에 안기신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80대 중후반의 노령이셨는데, 주일 아침이면 늘 6시 40분에 경기도에 위치한 집에서 출발하여 교회로 향하셨습니다.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매 주일마다 긴 여정을 하셨습니다. 퇴행성관절염으로 무릎이 편찮으신 상황에서도, 네 번의 환승을 무릅쓰고 매주 교회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 분이 보여주신 신앙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두고,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하여 한 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육체적인 것 외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주한 삶, 깊어져야 할 책임, 혼란한 마음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장애 혹은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붙드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언약 중심의 삶을 이 시간,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기억에 담아야 할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야

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11절)”입니다. ‘강한 자의 손’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 다. 성경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속량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세상의 강한 자의 손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조그마한 손을 서로 붙잡고 나들이 가는 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로 잃어버리지 않게 맞잡은 손이 얼마나 예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로 붙잡은 그 손은 언제 풀릴지 모르기에 불안합니다. 반면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아이들의 손을 붙잡은 엄마와 아빠의 손은 단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 언약을 붙잡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한 자들은 물론, 도저히 여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유유히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바벨론의 손을 묶으신 강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신약성경의 예수님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 다. 예수님의 힘이 아니라 강대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바알세불의 손보다 내 손이 훨씬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을 믿음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언약을 붙들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드는 삶으로의 적용

많은 성도님들의 공통된 고민 중 하나는 자녀양육입니다.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의 신앙이 다소 빼박해지기에 부모님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과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면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직장과 결혼생활에 이르게 되면, 정말 신앙을 떠나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염려하게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 육신은 쇠약해지고, 더 이상 이 땅에 살 날도 많지 않아 보이는데, 빠르게 세워지지 못한 자녀들의 마음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결국은 돌아오게 되리라’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삶을 열심히 사시면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해 내가 얼마나 기도했니? 이제 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렴’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이 혼련이,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분께 기도를 부탁해 보십시오. 언약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전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DNA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과 염려를 벗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되리라’는 언약대로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힘껏 나아가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Eventually, You Will Return

(Jeremiah 31:11-12)

Rev. Kyu Sam Han

The prophet Jeremiah proclaimed to the people of Israel who were being taken captive in Babylon that God's plan was not a disaster, but peace (Jer 29:11). It's because God's covenant is that no matter how hard and difficult situations are the people of God in, God will eventually let them return. To live taking hold of the covenant is to live believing this word of God. Like the motto of our Chung Hyun Church this year, "Holding onto the covenant, go forward to the world and the neighbors", I hope you hold firmly on to the covenant. Jeremiah proclaimed not only 'how to hold on to the covenant' but also the feature of holding on to the covenant. Through the word 'When seventy years are completed for Babylon, I'll let you return'(Jer29:10) God will eventually bring the people of God back to His bosom. We will keep deep in mind the word 'Eventually, you will return', which is in the center of life of taking hold of the covenant more firmly.

'A great throng' and 'the strong hand'

"Behold, I will bring them from the north country, And gather them from the ends of the earth, Among them the blind and the lame, The woman with child And the one who labors with child, together; A great throng shall return there."(Jer 31:8) When examining historically, the number of the Israelites who came back from the Babylonian captivity was not small, but when comparing with that of people who returned from exile in Egypt, it was not definitely a large number. Rather, the number of people who settled in Babylon was larger. Therefore, we can say spiritual symbols are included in the expression of 'a great throng'. It means that the people God prepared in person for worshipping Himself are 'a great throng'. It means that all the people of God who scattered to 'the end of the earth', which is Babylon, will return according to the covenant. When observing the great throng, 'the blind' and the lame are included among them. Not only perfect and great people but also imperfect people come before God so that 'a great throng' will be completed through them. Physical weakness and spiritual imperfection do not become any restrictions in the perspective of God. Rather, the covenant that God will surely bring the people God Himself has chosen back to Himself can be really important in the Kingdom of God. Another group forming 'a great throng' is 'expectant mothers' and 'women in labor'. Women who are expecting the month of labor and women who have just given birth joined the throng of long march from Babylon to Jerusalem. This is the spiritual challenge. It means that no matter what physical or environmental hardships we face, we have to join the work of going back to God. When God calls His people back before Him again, we must go forward to Him with obedience. That's why the blind, the lame, and those who can not move easily are among 'a great throng'. The Bible instructs us through this that no matter what environment or conditions we are in, the believers returning well to God are the believers taking hold of the covenant.

This is a story about a deaconess who was taken to the bosom of the Lord last year. She was an old person in her mid-to-late eighties, but she always left her house located in Gyeonggi-do at 6:40 every Sunday morning for the church. She took a long journey to attend the third worship service every Sunday. Her knees were suffering from degenerative arthritis; nevertheless, she came to the church every week through overcoming the difficulties of transferring four times. I think focusing on the beauty of faith this person showed, we have to look at this spiritually. We should look back on the heart longing for going forward to God once again. There are things that block our path to God in our lives besides the physical. Busy lives, responsibilities to bear, con-founded mind, and so on can be obstacles and excuses for going forward to God. However, what should be prior to above all else is the very 'life of holding on to the covenant'. I hope that at this moment, you will make a decision

to live a covenant-centered life, which leads us to returning to God.

The word of the text, which we should contain in our spiritual memory, is "For the Lord will deliver Jacob and redeem them from the hand of those stronger than they.(v.11)" "The hand of those stronger" means Babylon. Babylon at that time was the most powerful force on the earth. The Bible proclaims to the people of Israel 'I redeemed you.' that is, God delivered them. It means that the hand of God is stronger than the hand of the strong in the world. It is the saying that they experienced that the covenant of God holding on to us is stronger than any of things in the world. Have you ever seen kindergarten children going on a picnic holding each other's tiny hand in hand? How beautiful the hands holding each other in order not to lose each other are! However, it's uncomfortable because we do not know when the hands are unfastened. But when children leave the kindergarten for home, the hand of father and mother holding children's hand are incomparably strong. Holding on to God's hand, that is, holding on to the covenant is like this. Like children holding the hands of their mother and father, we should live holding on to the promise of God. It's because God's hand is the strong hand which tied the hand of Babylon so that not only the weak but also even those who are never able to take a trip can return safely. This feature is emphasized once again through Jesus in the New Testament. When Jesus was driving out demons, there were some people who belittled the power of Jesus. Some people said demons were driven out not by virtue of Jesus but by stronger Beelzebub. Then Jesus said, 'My hand is much stronger than Beelzebub's'. I hope you experience the strong hand of the Lord through faith. Because the strong hand of the Lord holds you and me, we can take hold of the covenant.

The application to the life of taking hold of the covenant

One of the common worries of lots of believers is the nurture of children. When children become the middle school students, the parents come to feel nervous because their children's faith seems to be a little bit meandering. They feel even uneasy whether their children can really confess their faith. When they reach high school and universities, their parents begin to worry if they will be away from faith. When the children reach having jobs and marrying, it is their children who are really leaving faith that their parents are worried about. As we get older, our bodies become weak and it seems that we do not have many days to live on this earth, lots of parents become nervous owing to their children's faith, which they think, was not established rightly. To overcome these worries is the 'covenant'. It is to hold on to the word, 'God-chosen people will eventually return.' I hope that living a life of holding on to the covenant faithfully, you ask your children as their parents. When parents say, 'How long I prayed for you! Now, will you please pray for me?', most of the children come to pray for their parents. The training of persuading children to pray becomes a stepping stone for the children to return to the Lord. Not just children. Do you have any one whom you really love? Ask the person to pray for you. Ask a person who seems to be the person of the covenant, but is not easily evangelized to pray for you. The prayer becomes a steppingstone for the person to return to God. It's because God's people have within themselves DNA that makes them pray before God. Taking off agonies and worries, we only have to hold the covenant of God. We are to come back ultimately as mentioned in the covenant that 'You will eventually return.'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with this faith you will move forward strongly in 2023.

영역:이울리



신임 교역자 소개



권순동 목사(청년1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년1부를 섬기게 된 권순동 목사입니다. 저의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 신하나, 아들 권아인(5세)이며, 2023년 1월 딸이 태어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매력적인 전통을 가진 충현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열정 넘치는 청년1부 빌더스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매력적인 전통과 신학자이며 목회자이신 한규삼 담임목사님의 신학과 목회와 삶을 배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고후 5:18)을 받은 자로서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굳게 세워져,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도록(골 2:7) 청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요셉 목사(청년3부)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새로 부임하여 청년3부와 찬양위원회를 섬기게 된 박요셉 목사입니다. 충현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행복한 사역,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은 행복한 다섯 식구입니다.

- 외유내강 한아름 사모(34) : 온화해 보이는 미모 안에 강단 있는 내면을 가진 멋진 사람입니다.
- 침착이성 박하영(10) :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독서를 좋아하는 든직한 큰 딸입니다.
- 유쾌발랄 박하늘(8) : 발랄하고 감성적이며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유쾌한 둘째 딸입니다.
- 감쪽당돌 박하울(5) : 감쪽하고 귀엽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싫어하는 귀염둥이 막내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딸만 셋을 주셔서 제가 집에 가면 여자 넷이 달려 나옵니다. 행복한 사람이지요.

저는 최근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30-40대 젊은 부부들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는데 충현교회에서 청년3부를 섬기게 되어 감사하기도 하고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충현교회와 한국교회의 내일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이 사회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꿈꾸며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또한 충현교회의 찬양을 책임지는 찬양위원회를 섬기게 되어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다현 목사(중등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새로 중등부를 맡게 된 이다현 목사입니다.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중등부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몸 된 충현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족으로는 사랑하는 아내 이윤지 사모, 아들 로이(5살), 그리고 딸 아인(100일)이가 있습니다.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중등부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 안에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낸 받은 주님의 천국 일꾼임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말과 행동 등 모든 면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도록 솔선수범하며 예수님께로 잘 이끌어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며 키와 지혜가 계속 자라도록 목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씨를 심고 물을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인내하며 견디고 주님의 말씀 안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동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동역교회를 소개합니다

전남신안 백련교회

-1교구 동역교회-

2023년부터 전도위원회에서는 충현 교회 성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구와 연결된 동역교회를 매월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교구 동역교회인 전남 신안의 백련교회를 소개합니다. 1교구뿐 아니라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련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90년 가까운 역사를 살아낸 교회입니다. 본래 건설한 타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우리 합동교단으로 전입된지는 7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과거에 한창 부흥기 때에는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기도 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 마을의 몇개 교회로 분립 되기도 했고 지금은 백련동 마을 주민이 대다수로 15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배당이 세워진 역사는 40년 정도 되는데 예배당은 낡았지만 보수공사로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목회자 사택은 샌드위치 판넬로된 가설 건축물이라 생활에 곤란한 부분이 많아서 차후 건축이 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성도님들 평균 연령이 70대로 노년층이 대부분이라 자립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충현교회(1교구)의 동역교회가 되어 돌봄을 받고 있어 모든 성도님들께서 큰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속한 마을은 30가구가 되는데 대부분이 60~80대 노인분들이 사시고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작년과 연초에 마을에서 두 분이 전도되어 지난 성탄절에 모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백련교회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되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말씀 중심의 선교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작은 시골 마을에 있지만 하나님나라의 한 지경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백련교회에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충현교회와 특별히 1교구 성도님들 가정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살렘!

백련교회 김산호 목사 올림

백련교회 기도제목

1. 온맘 다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충만하게 하소서
2.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3. 항상 힘써 모여서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하게 하소서
4. 다음 세대들이 전도되고 세워져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5.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채워 주소서
6. 담임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과 성령충만과 지혜를 더하소서
7. 지역사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게 하소서



성경 읽는 태도가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①

교회설립 70주년 전교인 성경통독을 시작하며 지난해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2022에서 강의하신 권성수 목사님의 성경읽기 강의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이제 곧 시작하는 성경 통독에 앞서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성경을 읽는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많은 도전과 은혜 있는 시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실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동기 유발의 세계적 연사 지그 지글러의 말이다. 이 말이 성경을 읽는 태도에도 적용된다. 바른 태도로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도가 높아진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은 '무진장 보고'인 성경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당신에게 성경은 혹시 무용지물이나 머리로만 아는 무력지물이 아닌가? 성경이 혹시 평소에는 '먼저 묻은 책'이고 심방 때는 '먼저 터는 책'이지는 않은가? 성경이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지만 당신에게는 '가장 안 읽히는 책'은 아닌가? 생명의 책 성경을 읽어도 거듭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영적인 만나, 성경을 읽어도 굶주린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성경을 어떤 태도로 읽어야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고도로 높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마음을 개방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영)을 보신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누구나 성경 앞에서 당연히 마음을 연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그런가? 불신자의 경우, 마음을 닫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기독교를 논박하고 박멸하기 위해서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신자의 경우에는 어떤가?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빼앗겨 닫혀 있을 수 있다. 세상의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어 말씀의 식욕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 성경 말씀이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이 자유롭게 사는데에 쇠고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읽어야 하나? 또 설교시간이야? 또 성경 공부야?' '다 아는 말씀인데....' '바빠 죽겠는데...' 이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를 먹으면서 지혜를 얻는데 246억 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는 시간과 관심을 얼마나 투자하는가? 다윗은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했다는데(시1:2) 우리는 어떤가? 다윗은 말씀 예찬에 176절을 썼는데 우리는 몇 절이나 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성경에 대해 마음이 가장 활짝 열린 상태를 생각해도 마음 개방 정도를 알 수 있다. 버핏의 말 한 마디 들으려고 수백억 투자하는 것 같은 태도, 하나님의 태산 같은 지혜 광산 앞에 호미 든 태도(욥 28 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다는 태도, 평소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얻고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유익으로 받겠다는 태도(시119:50),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태도(시19:10), 성경 읽는 시간을 연인과의 데이트보다 더 달콤하게 여기는 태도, 이런 목표로 성경 앞에서 최대한 마음을 여

는 것이 중요하다. 팀켈러도 성경을 읽을 때는 머리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주로 머리로 성경을 성경의 메시지를 받는 다는 인상을 결코 주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의 머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적인 자원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최고의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느냐 못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다. 예수께서도 항상 '들을 머리가 있는 자는 생각할지이다'라고 하시지 않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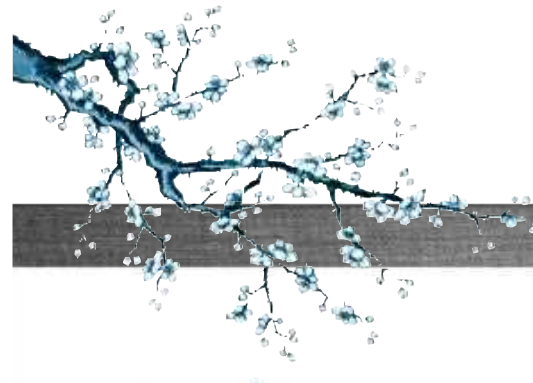
세계 부흥 역사를 놓고 볼 때 성경에 대해 마음을 닫았을 때는 교회도 쇠퇴하거나 소멸하고, 사회도 도덕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계기가 어떠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되어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고 세계도 살아났다.

지금도 우리가 세속이나 이단이나 이념에 물들어 성경에 대해 마음을 닫을 때 개인이 영적으로 죽고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죽고 사회와 세계가 죽음으로 치닫는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

예수께서도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게할리라” (마 11:25, 28)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을 연결하신 것에 주목하라.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여 먹고 흡족해하듯, 천국의 의로운 말씀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흡족해서 안식을 누린다.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했다.(삼상3:9)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함으로 당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처럼 자신의 발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진수성찬 대접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보셨다(눅 10:39). 불신자들, 특히 불신 지성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접촉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한다.

'마음을 개방하라' 세상에 빼앗긴 마음은 성경에 닫힌 마음이다. 세상에 분주한 마음은 성경을 귀찮게 여긴다. 세상맛에 길들여진 마음은 성경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죄악의 자유에 들뜬 마음은 진리의 자유(요8:32)를 쇠고랑으로 여긴다. 성경 앞에서 우선 자신의 마음부터 점검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을 활짝 열겠다고 결단하라. 그것이 성경 통독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설 가정예배

찬 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함 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	다 함 께
말씀봉독	시편 133:1~3	다 함 께
말씀선포	연합된 가정의 축복	인 도 자
주기도문		다 함 께

연합된 가정의 축복

사랑합니다.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2023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3편으로써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천 온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 기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원어로 혈육, 혈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야곱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한 형제이고, 혈육이죠.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혈육적인 가족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혈육으로는 하나가 되었지만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연합 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온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 가정이 모일 때 이 자리에 주님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이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기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믿음의 가정, 예배가 중심이 된 기록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만들지도 못하고 아무데서나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기름은 성전 기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거나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성전의 기물들이 기름을 통해서 구별되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거룩하여지고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가정,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로만 구별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2023년에는 구별된 자로,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온가족이 구별되어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령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혈문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땅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물임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천천의 온 가족들이 설날을 맞이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되시길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고, 거룩함으로 연합되고, 성령으로 연합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연말정산 신고용)

- ※ <주일헌금>, <지명헌금>은 개인헌금으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기부금 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헌금자 이름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동반헌금자는 가능)
교적번호가 같은 가족이라도 합산 불가하며 개별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 재발급이 안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5월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디모데스마트성도앱' 설치 방법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디모데스마트성도앱' 검색 후 설치
 - 교회이름/담임목사이름 입력 → “내용보기” 클릭 후 동의 → 이름, 전화번호 입력 → 6자리 인증번호 입력 후 가입완료
- 1. '디모데스마트성도앱' 이용 발급
 - ① 증명서(기부금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②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개인출력' 또는 '사업자출력'을 선택하여 발급가능금액을 확인하세요.
 - ③ 금액이 이상한 것 같은 경우 '확인요청'을 눌러 교회에 내용을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 ④ 개인출력을 선택한 경우 본인의 정보를, 사업자출력을 선택한 경우 사업자정보를 입력합니다.
 - ⑤ 기부금증명서의 발급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금액수정은 동반헌금인 경우 출력가능 금액만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 ⑥ '발급'을 눌러 발급을 진행합니다.
 - ⑦ 'PDF' 저장 또는 이메일로 'PDF 발송'을 눌러 발급을 진행합니다.
- ※ 선교관 1층 사무국 회계과로 직접 오셔도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 : 사무국 회계과 / 02)562-1915 또는 070-5077-8865

권사회 전체 월례회

일 시: 1월 18일(수) 수요일예배 후 장 소: 본당 및 실시간 영상

벤엘 찬양대원 모집

찬양의 멜로디 속에서 함께 삶을 고백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모집대상: 충현교회 세례교인/ 등록 후 1년 경과하신 성도
찬양시간: 주일 3시 30분(찬양예배)
연습시간: 주일오후 1~3시, 4:30분~6시/ 주중 연습 없음
문의처: 총무 김선희(010-2297-0039)

예배 담당(1/18~1/22)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1/18	수요 I	꽃대를 향하여 (빌 3:10-14) 김주한 목사	권순동	신란희
1/20	금요일집회	불가능을 위한 선교 -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 유산 (약 5:17) 패트릭펄 목사	강성은	
1/22	주일 I	레마, 로고스, 케뤼그마 (딤후 4:17, 마 12:41, 눅 11:32, 고전 1:21, 롬 16:25, 딤후 1:3) 한규삼 담임목사	박성덕	배종락
	주일 II		권혁근	김철남
	주일 III		김주한	박건일
	주일찬양	복음이 주는 위로와 견고함 (살후 2:13-17) 임진실 목사	박영환	최창하

교구별 주력새벽기도(1/16~1/22)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6(월)	김주한/박노익	민 9:15-23	전교인
17(화)	윤준식/ 김근	민 10:1-10	5교구
18(수)	위안복/김동철	민 10:11-36	전교인
19(목)	전영재/이정진	마 1:1-17	10교구
20(금)	박동진/김종흡	마 1:18-25	2교구
21(토)	박요셉/박요셉	마 2:1-12	전교인
22(주)	윤준식/윤준식	마 2:13-23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일집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 * 금주 화요일집회 강사 : 임대영 목사
- * 금주 기도원 봉사 : 10교구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테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년 1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년 2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년 3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구분	시간	장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성경아카데미	12:20~13:30(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12:40~13:40(아블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엠마오홀
11교구(새가족)	오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예꿈 양육부	(주)오전 8:30~오후 2:30	예꿈도서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실(제1교 701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유다홀(제1교 702호)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총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총현복지관
총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88	박여호수	기초과정	
2	89	이서은	기초과정	
3	90	김말녀	기초과정	송선주
4	91	홍정옥	기초과정	조영자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79	이다솜	기초과정	최두현
2	80	최진우	영아부	최두현
3	82	박민석	기초과정	
4	83	김정원	기초과정	
5	85	박서진	고등부	
6	86	박서현	초등부	
7	87	오호진	기초과정	안지명
8	45	오유리	영아부	안지명

<교육 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2	46	오하송	영아부	오진철

출 산

- 1. 박주영 집사, 공예원 집사(6교구) / 출산, 아들, 2022년 12월 28일

별 세

- 1. 김혁 성도(6교구) / 5일 별세, 7일 장례
- 2. 서경희 은퇴집사(양승기 집사의 모친-윤숙희 집사의 시모, 8교구) / 6일 별세, 9일 장례
- 3. 정해임씨(조정숙 성도의 모친, 11교구) / 7일 별세, 9일 장례
- 4. 노병태씨(박명근 장로의 장인-노명순 권사의 부친, 8교구) / 10일 별세, 12일 장례

1월 정기당회

일 시: 1월 15일(오늘) 찬양예배 후

교구찬양(주일찬양 예배 시)

일 시: 1월 15일(오늘)부터 실시

금주 단기선교 파송 (미얀마 1팀)

선교지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미얀마 만달레이	김성해 안수집사 외 20명	1월 19일(목)~1월 27일(금)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시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행정위원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인사위원
김태식 9교구장	이상섭 동산부장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종보기도부장
조종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할렐루야찬양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이창희 총현복지재단강임이사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무위원장	최현구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아멘찬양대장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건축위원장	김철남 예루살렘찬양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별칭찬양대장	홍순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준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이정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영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홍연 헌금부장
최규욱 예배위원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이서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인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익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12교구	이원용 소망부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한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립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후직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청년1부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광명대학원	이정은 11교구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신명환
외선부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해군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람자야 라우단다쉬
베 هنگ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친이시
윤시안 장지숙 조여인 말릭 스텔라